

신안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협약

도초면 발매리 일대 9ha 사업비 200억원 진행 아열대 작물 바나나 생산 핵심 거점으로 육성

신안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지난 4월 21일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일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대 9ha 면적으로 사업비 200억원(국비140억, 도비18억, 군비42억)을 투입 진행한다.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는데로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온실신축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친환경 바나나를 재배해 관내 친환경 급식으로 우선 납품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온실을 비롯 체험학습장, 선별시설, 스마트팜 지일센터, 저장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신안군을 시설원예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바나나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오늘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실시 개인정보 유출·환경오염 방지

영암군은 25일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디지털 저장매체는 개인 컴퓨터(PC)의 하드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SSD, USB), 휴대폰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디지털 기기의 부품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이 폐기한 PC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저장매체를 지참해 군청 총무과 정보통신팀에 방문하면 동의서 작성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활용해 군민 누구나 신청해서 파기할 수 있다. 파쇄 후 남은 잔재물은 군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팀에 인계해 재활용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는 군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안전하게 파기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아울러 환경오염도 지킬 수 있는 일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03호점 현판식

영광군은 지난 20일 대마산단 전기가 2로에 위치한 대북식당(대표 김철호)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03호점' 현판을 전달하였다. 평소 김철호 대표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임해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영광 만들기에 뜻을 모아 모금액이 우리군 소외된 이웃에게 잘 쓰이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펼쳐

지역 내 반려동물 수 약 2700마리 추정...펫티켓 홍보

무안군은 지역 내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상반기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반려동물 수는 약 2700마리

로 추정되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안군 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홍보내용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기,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 등이다. 또한 배변봉투 지참, 동물 등록 등 펫티켓 준수사항과 함께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안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관련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주병률 축산과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가 정착되고 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양파김치 담그기' 교육 실시...양파 소비촉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 돕기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 이날 오전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군민 20여 명과 함께하는 '맛깔나는 양파김치 담그기'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전문 강사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햇양파로 김치,

장아찌, 피클 등 양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파 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답례품 개발, 지역 활성화 연계 등에 중점

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

시는 제도 시행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홍보, 운영지원, 답례품 개발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는 ▲충분한 제도 홍보 및 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환경 조성 ▲관광자원 등 활용 지역 활성화 연계 ▲자발적·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목포형 매력(맞춤형 답례품, 마케팅 전략)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금 주체는 지자체며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전체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답례품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답례품으로 특산물 외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권과 숙박권 등 목포만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표준안이 시달되면 이에 맞춰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